

월간 **중현**

The Monthly Chung Hyeon

'81 **2** 월호



예배의 참 뜻

성도들의 가정은 주일날이면 일주간의 다른 날보다 무척이나 바쁘다. 단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을 일찍 깨워 세수를 시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아침식사를 시켜 주일학교로 보낸다. 아이들을 주일학교로 보낸 부모님들은 서둘러 집안을 치우고 여기 저기서 올려오는 교회 차임벨 소리를 들으며 교회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특별히 제직이나 주교교사나 성가대원, 혹은 다른 봉사직을 맡으신 성도는 더더구나 바쁘다. 맡은 봉사직 때문에 다른 교인보다 아침 일찍 서둘러야 하고, 가르치는 일, 사람 만나는 일, 회의, 사무적인 일 등등으로 동분서주해야 한다. 이렇듯 아침 일찍부터 집안일과 봉사직으로 마음과 활동이 분주하다 보면 막상 예배는 의례적으로 치루어야 할 의식처럼 생각되어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일을 지킨다면 이것은 노른자 빠진 계란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주일의 핵심은 예배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전도 등등의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요 4:24) 해야 한다고 하였고, 바울사도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롬 12:1)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곧 “영적 예배”요, 진정한 “영적 예배”는 곧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구약의 제사행위는 “산 제사”가 무엇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표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바친 제물(소, 양, 비둘기)은 흠없는 순전하고 온전한 짐승이었다. 제물을 드린 자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은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서 잡는다.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제단의 4 면에 뿌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머리는 베어내고 몸통이를 각뜨고, 기름을 베어내고, 내장을 꺼내어 물로 깨끗이 씻는다. 그리고 제단에 불을 피우고 머리와 각튼 몸통이와, 내장과 기름을 불사른다. 우리의 예배의 행위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제물은 흠없고 순전한 것이어야 하듯, 예배자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해야 하며, 육신의 용모까지도 단정히 해야 한다. 바쳐진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잡듯이 예배자는 세속적인 자신의 모습을 잡아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예배자는 허울의 가죽, 체면의 가죽, 위선의 가죽, 거짓의 가죽, 교만의 가죽을 완전히 벗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는 철저한 자기포기가 있어야 한다. 제물의 몸통이를 각 뜨고, 피를 제단 4 면에 뿌리듯이 예배자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낱알이 바치는 자기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제물의 기름을 베어내고 내장을 꺼내어 물에 씻듯이,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자신의 냄새나고 추한 모습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고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듯, 하나님 앞에 철저히 포기한 자아의 모습, 완전히 부정된 자아의 모습, 내 모습 그대로 드리는 노출된 자아가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태움을 받아 우리의 심중에서 회개의 십자, 감사의 십자, 사랑의 십자, 헌신의 십자에 성령의 불이 붙여져서 예배자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뜨거운 용광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받을 것을 바로 받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바로 드림으로 죄 용서함 받은 감격이 넘치고,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고 말씀을 통한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샘솟고, 서원과 헌신의 결심이 확실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

(주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9권 제2호 통권85호

— 2월호 차례 —

월간 충현

권 두 언		주 간	· 2
이달의말씀	은혜를 받은 자의 생활.....	김창인	· 4
선교사를만나	칠레 선교사 유재일목사.....	편집실	· 6
새 선교지	칠레 - 어떤 곳인가?.....	편집실	· 9

특집 / 예배

• 예배의 원리 및 내용.....	윤형철	· 10
• 예배와 음악.....	이성재	· 13
• 예배의 태도.....	장정일	· 16

만 난 사 람	1981년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편집실	· 18
기독교교육	새로운 기독교교육 이론 및 방법.....	문창수	· 20
중공보고서	제 2 차 중공선교여행보고서.....	이종운	· 22
편집실칼럼	반석위의 한국교회.....	손경수	· 26
찬송가감상	전능왕 오서시(새 7 장).....	김하진	· 26
교 계 소 식	월간교제 뉴우스.....	편집실	· 27
선 교 소 식	해외선교사 · 선교지소식.....	편집실	· 28
권 찰 수 첩	권찰의 임무.....	김원남	· 30
새 교 우	12월중 새 교우 · 결혼 · 별세자 명단.....	편집실	· 31
교 회 소 식		편집실	· 32
편 집 후 기		편집실	· 34
2 월의행사		편집실	· 34
화 보	1981년도 충현교회 교역자.....	편집실	· 35
표 지 설 명	1981년도 겨울 계절학교가 한창이다. 유년부 계절학교중 흥미있게 연극감상을 하고 있는 꼬마들의 모습.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생활

〈고전 10 : 31~33〉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는 무엇이며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떠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가?」하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삼천리 금수강산을 마음대로 출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5천 8백만의 내 동포 내 형제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 사랑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즐거운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생활을 바로 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바로 알고서 행하므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1.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생활은 어떠하여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위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시는 모든 것이 곧 은혜입니다. 자식을 키우시는 부모님의 수고, 이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밝게 비추는 태양, 맑은 공기, 햇볕 아래 자라는 곡식, 과일, 채소,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자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너무 귀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식이 뛰어나고 지위가 높다 하여도 은혜를 모르는 인생은 꿈보다 미련한 인생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은혜를 아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에 비로소 만물의 영장으로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2)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효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죄악을 이기는, 악마를 이기는 승

리자가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죄악의 유혹을 거절하며 맑은 바 책임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장래있는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은혜가 귀중한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귀중한 대예만 사용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선물을 귀하게 쓸 줄 알며 귀하게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귀한 선물은 귀하게 쓸때에 더욱 빛이 나며 주신 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 더욱 더 귀한 것을 주시게 됩니다.

4)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다 갚지 못하겠지만 갚아 볼 정성만이라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갚을 줄 아는,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2.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위치에서 은혜 보답하기를 원하는 성도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먹든지 못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못 하든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욕심장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을 다섯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1) 자랑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어 보기로 결심합시다.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자식은 부모님의 자랑감이 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신자는 하나님의 자랑감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자랑감 되기를 원하는 자식은 부모님께 충성하게 되며 어떠한 피로움도 인내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후회할 줄 모르는 전진하는 용맹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 보기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일생을 살며 전진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의 자랑감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자랑감이 되고 자 노력하는 사람이 됩시다.

2)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자식은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쟁의식을 버립니다. 비록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찌라도 이 경쟁의식은 서로간의 화목을 깨뜨리는 분쟁의 요소가 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경쟁의식의 부산품은 우리 자신을 비참한 가운데로 빠뜨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거기에 땀흘리며 최선의 정성을 다 쏟읍시다. 그 결과 형제의 화목을 이루게 되며 우리의 삶에 덕을 세우게 되며 은혜에 보답하게 됩니다.

3) 피차에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잘되면 시기하고 모략하는 마음이 생기고 못되면 속으로 기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모님의 은혜에 불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내 이웃이 잘되면 기뻐하고 못되면 가슴치고 울면서 기도 할 마음이 생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웃에게 축복의 말만 합니다. 이웃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 피차에 축복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저는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당

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개인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애쓰지 말고 가정의 점수를 높이는 데에 애쓰라고 당부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 점수보다 교회의 점수가 올라가도록, 개인이 우수하고 똑똑하다는 말보다는 민족과 나라가 칭찬 듣도록 합시다. 피차에 수고하고 애씀으로 서로의 허물을 덜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신자가 됩시다.

5)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생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귀해도 생명을 앞서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돈보다, 내 명예보다, 내 권세보다 남의 생명이 더 귀한 줄 압시다.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바로 행하여야 은혜 받은 자로서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충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인생다운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됩시다.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참된 인격자가 됩시다. 은혜가 귀중한 줄 알아 귀하게 쓸 줄 아는 참된 인격자가 됩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 볼 마음을 가진 참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땀과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읍시다. 그리고 피차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됩시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착취하고 잘난 사람 모략, 중상하는 좀스러운 인생이 되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손을 뻗어 붙들어 키워주고 서로 간에 덕을 세우며 축복의 말만 나눕시다. 꿈에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하여 서로가 복을 받아 삼천리 강산은 하나님의 제단 되고 5천 8백만 내 백성은 제사장 되어 세계에 복음을 전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손만대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미의 3 번째 선교사 - 유재일목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터

지난 1월 28일 현지로 출국,

- 열두번째 선교지, 칠레로 유재일목사가 파송되어 떠나가셨다. 지난 해의.....□
- 김재창목사가 파라과이로, 그 전해에 백성룡목사가 아르헨티나로 가 계셔.....□
- 이제 남미에만 3명의 선교사가 파송된 셈이다. 떠나기에 앞서 월간충현.....□
- 편점실에서 잠시 만나 그동안의 경과, 앞으로의 활동계획, 그동안의 일들.....□
- 을 알아 보며 온 교우에게 소개한다.□

그동안 월간충현에서도 목사님께서 남미의 선교사로 내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수속이나 준비관계가 많은 시간을 요하기에 일체 발표를 보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 지난 달에 된 줄로 압니다. 그러니 많은 교인들간에는 갑작스런 파송으로 생각하기 쉽겠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줄로 압니다. 그 경과를 말씀 해주십시오.

1979년도 말쯤 남미가운데의 한 나라의 선교사 후보로 김창인목사님께서 지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선교에 대한 꿈도 없었고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 등으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얻어 기도해 오는 가운데 처음에 신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다짐했던—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것이 생각나며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7월 정기 당회에서 정식으로 남미의 칠레선교사 후보로 선정되고 그동안 수속, 준비를 해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충현교회에 언제 오셨는지요? 또한 그동안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하신 일은?

제가 충현교회에 온 것은 1979년 3월 9일이지요. 산업전도교육부의 부지도로 일하며 산업전도회의 직장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또한 전도위원회의 특수분과 전도관계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중석목사님이 떠나시면서 산업전도교육부 지도로 일하게 되었고 또한 이성봉 목사님이 떠나시게 되어 전도위원회의 특수분과—군, 교도소, 병원, 학원전도—에서 일하게 되어 주로 특수분야 전도 및 교육관계의 일을 해 온 셈입니다.

현지의 사정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는 곳은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입니다. 그곳에는 우리 한국인 교민이 100여세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인교회가 한 군데도 없지요. 그래서 지금도 칠레 장로교 총회장이 시무하는 교회를 빌려서 교민들끼리 모여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목회

- 국명 : 칠레공화국
- 면적 : 75만 7 천 km² (남북해안선길이 4, 270 km)
- 인구 : 1, 058 만명 (1975년도)
- 수도 : 산티아고 (3, 217, 000명)
- 인종 : 백인 95% (스페인계 75%, 유럽계 20%)
- 언어 : 스페인어
- 기후 : 각 지방별 약간 차이있음
북부 : 사막 및 건조기후
중부 : 여름엔 건조, 겨울엔 강우량 많음.
남부 : 편서풍지대
연평균기온 : 14℃ (하기 17℃, 동기 12℃)
- 종교 : 로마카톨릭교



자도 없기에 교민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서 그 분이 주로 인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곳에 갈 수 있게 된 것도 한국 교민들로서는 초청할 힘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그곳 장로교 총회장께서 초청하여 그곳 교회의 한국인 지도교역자의 자격으로 초청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기에 저기에 가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곳에 가서 하실 일과 계획은 어떻게니까?

첫째로는 그곳 교민들의 신앙지도가 가장 시급한 줄로 알고 그 일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목회자도 없이 자신들이 해 왔기에 목회자를 매우 갈망하고 있고 영적으로 매우 갈망하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보다 정상적인 신앙지도를 위해서 빨리 교회 건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현재 그곳의 낡은 학교를 구입하여 교회당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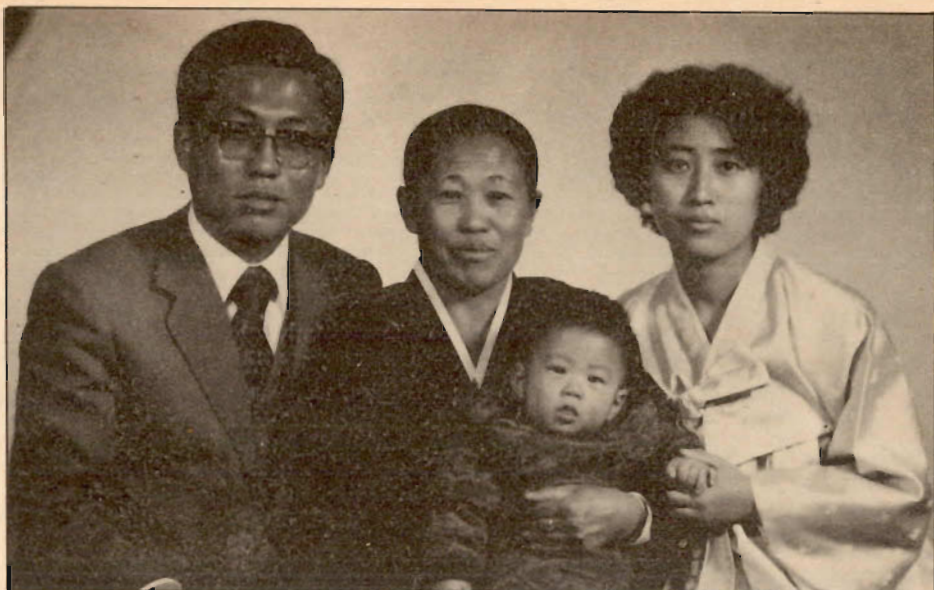
세째로는 원주민 총회와의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앞으로 원주민 선교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

리 총회에서 감사장과 편지를 보내어 유대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 총회장이 매우 열성을 가지고 우리 교포의 신앙을 위해 최대의 편의와 협력을 해주고 있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칠레의 정치·종교·사회의 여건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남미가 대부분 다 그런데, 국교가 카톨릭입니다. 그러나 그 카톨릭이 무척 부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거근을 당하게 되니 장로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들어 가게 되었지요. 지금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는 9만명이 모이는 세계에서 단일교회로는 제일 큰 신교 계통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처럼 카톨릭이나 신교나 말씀이 없는 곳이기에 선교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장로교가 들어가 카톨릭에게 순교를 당하기도 해서 지금도 장로교에서는 순교기념일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사회적으로는 반공국가이면서도 공산국가와 폭 넓게 교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공대사관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북괴하고도 교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칠레에 하나 주목할 것은 있어서 앞으로 외향선교에 큰 기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토의 한쪽이 해안에 연해 있어 외향선의 출입이 잦고 해안무역에 중심지가 되고 있어 세계 각국의 많은 외향선이 몰려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준비하시면서 느낀 문제점이나 또한 가셔서 당장 시급한 일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일 문제는 역시 제 개인의 어학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9월부터 어학을 익히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 가서는 현재 교회당을 빌려쓰기 때문에 교민들의 신앙지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우선 저녁예배, 수요·새벽기도회등을 모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일학교를 개설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남의 교회를 빌어 쓰기에 어쩔 수 없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뒤 따르게 되지요. 이 일을 위해 특별히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떠나시면서 교인들이나 또한 동역자, 교회에 게 부탁하실 말씀은?

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많은 해외선교사를 파송하며 큰 일을 할텐데 선교사가 후보로 결정되면 그 선정된 때부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한 준비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가도 사실 거기 가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기서 준비가 소홀해지면 거기에서 더 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교인들이나 동역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읍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해 달라는 것 밖에는 달리 더 부탁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다른 선교사님들은 우리 교회에 오래 계시며 노련한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기간의 기간을 보냈고 또한 연령적으로나 목회 경험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시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가셔서 성공적인 선교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겠습니다.

대답·정리/이 형 수 집사
(월간충전편집부장)

칠레—어떤 곳인가?

오순절 계통 교회가

급성장

1. 정치풍토

칠레는 중남미국가 중 정치적으로 특이하다. 즉 의회주의에 의한 정치가 발전하고 6년마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민주주의가 철저하며 또한 군(軍)은 합헌성 존중과 직업군인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1932년 이후 구메타당의 비합법적 수단에 의한 정권교체는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같은 민주적 기반이 국내에 존재하는 중진국 특유의 빈곤과 상충하여 국민의식을 진보적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도리어「아옌데」 사회주의 정권을 탄생케 한 유력한 요인이 되었다.

2. 한국과의 외교관계

- ① 1962년 6월 : 양국은 국교수립에 합의.
- ② 1966년 11월 : 주 칠레 상주대사관 설치.
- ③ 1975년 4월 : 주 한 칠레대사관 재 개설.

3. 국내경제

주요산업은 광업(전 수출액의 85~90% 차지)으로 동(銅)은 미·소·잠비아에 이어 세계 제 4위의 생산국이다. 그외 시멘트, 철강, 석유제품, 타이어류브 특히 펄프, 제지분야에서도 수출국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었다.

4. 사회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일반적으로 높으며 문맹율은 10%정도이고 종교는 로마·카톨릭교가 지배적이나 신앙의 자유가 확립되어 있고 정·교분리가 완전히 행해지고 있다.

5. 종교

로마·카톨릭 교회가 인구의 80%를 차지하지만, 그 중 10%만이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이다. 복음주의적 운동이 성장하고 있으며 주로 오순절계통이 강한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1966년 프레이정권은 법적으로 모든 공립학교에서 로마·카톨릭교를 가르칠 것을 공포하였으나 복음주의 교단들은 여러 주요도시에서의 집회를 벌임으로써 정부에 대항하여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 각 교단의 선교활동

(1) 장로교단

연합장로교가 1873년 최초로 시작하여 10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불과 2,500명 정도밖에 안되는 소극적 활동에 그치고있다. 현재 장로회내에는 세계장로선교회(World presbyterian Missions)와 독립장로해외선교회(Independent Board for Presbyterian Foreign Missions) 두 단체가 조직되어 있다.

(2) 감리교단

미국 감리교가 1878년에 입국하여 칠레 감리교회(Methodist Church of Chile)는 1969년 총회를 열어 자립교회를 설립하였다. 2,200명의 교인수와 44명의 목사와 44명의 선교사가 활동중이다.

(3) 침례선교회

1892년 독일에서 이민한 사람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1908년 칠레 침례선교회(Chilean Baptist Convention)가 조직되었다. 현재 118개의 교회와 11,000명의 교인수를 가지고 있고 지난 10년동안 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신학교, 의료사업, 그리고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4) 영국국교회

이들은 남부 원주민들 사이에서 의료활동과 직접전도, 농업, 문서전도, 학원전도, 등을 하고 있으며 현재 50명의 선교사가 활동중에 있다.

(5) 루터선교회

1954년에 시작하여 1967년 현재 141명의 수색교인과 2명의 목사가 있을 뿐이다.

(6) 오순절선교회

1954년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교회를 조직하였다. (Church of God, Cleveland) 현재 45개의 조직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는 산티아고에서 1941년에 시작되어 1950년에 조직하여 현재 33개의 조직교회와 1,350명의 교인수를 갖고 있다.

칠레에서의 진정한 부흥은 토착 오순절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급성장이 되어 현재 칠레복음주의 교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오순절교파 내에서도 125개의 다른 교단이 있다. 복음적 오순절교회(Evangelical Pentecostal Church)는 12만명의 교인수를 갖고 있고 오순절계통의 교인수를 모두 합하면 무려 50만명 이상이나 된다.

(7) 교회연합운동(에큐메니칼운동)

루터교회와 칠레 오순절교회와 오순절 선교교회, 3단체가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에 가입하고 있다. 한때 칠레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Of Chile)가 가입했었으나 1968년에 탈퇴하였다.



윤 형 철 목사

(교육위원회 위원장 · 당회장실장)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인식해야

1. 예배의 정의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혹자는 “은혜의 계약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 또는 만남”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또는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대화” “예배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위대하신 구속적 행위와의 단결된 응답”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에는 예배가 지니는 의미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체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활동—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구속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구속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된다. 한편 예배는 일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의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연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다.

루터는 예배의 본질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와 계시에 대한 인간의 감사에 넘치는 반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편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편에 역점을 두었다. 반면 칼빈은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선포와 그에 대한 인간의 겸허한 경배라고 정의하면서 인간편보다는 하나님의 편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이에 대한 인간의 믿음 안에서 응답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공로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요, 이 만남의 내용은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요구이고, 구속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예배의 원리

1) 예배는 자신을 역사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를 둔다.

예배의 출발은 인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 이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첫째로, 예배자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상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11: 6) 둘째로 예배자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사6: 3) 세째로, 예배자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으로서 예배자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요4: 24)

2)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에 근거를 둔다.

예수님은 공적예배를 가능케 하시는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 가지 못함”(요14: 6)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 오시며, (요14: 9)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고후5: 17)로서 대제사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예배자를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예배의 중보자일 뿐 아니라 공적 예배의 완성자이기도 하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단번에 죄생의 재물로 드러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완성시키신 것이다.

3) 예배는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로 예배할찌니라”(요 4 : 24)고 하신 말씀은 예배는 영적이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영적 예배란 성령님이 예배의 원동력이 되시는 것을 말하며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가 배제된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성도들의 예배에 임재하시며, 성도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신령한 예배는 예배의 모든 요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작용할 때에 되어지는 것이다. 기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져야 하며, (롬 8 : 26~27 고전 14 : 15; 엡 6 : 18) 찬송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열매이다, (엡 5 : 19) 신앙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지 않으며, (고전 12 : 3) 설교 역시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되어 지는 것이다. 예배를 통한 회개와, (요 16 : 8) 성도들의 생활의 변화와, (고후 3 : 17~18) 성도들의 생활의 열매와, (갈 5 : 22~25) 성도들의 헌신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활동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4) 예배는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질서있게 행해져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내의 성도들의 예배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교훈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안에서의 은사에 대한 무질서를 지적하면서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고전 14 : 5, 26, 40) 고린도 교회가 모임 때마다 찬송과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와 방언과 통역을 함에 있어서 이 모든 은사의 행위가 개인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함을 바울은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다. 참된 예배는 성령님의 자유로운 역사가 예배의 질서를 해치지 않고, 성도들의 예배의식이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의 행위이어야 한다.

공적예배는 그리스도인 개인의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선택받고 구속받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 전체의 공동적 행위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은밀한 개인적 교제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관계는 그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예배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행 2 : 44) 서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자기를 인식함과 동시에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됨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3. 예배의 요소

예배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2가지 요소가 내포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신적인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예배자에게 오시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봉독, 설교, 축도성례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적인 요소로서 예배자가 믿음에 의하여 전 인격적인 참여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도, 찬송, 헌금등으로 이루어진다.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 : 42)라고 누가는 초대교회의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 바, 사도들의 가르침(성경봉독, 설교, 권면등)과 기도와 떡을 떼는 것(성찬)이 예배의 주요 요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초대 사도시대의 공적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이었다. 이외에도 바울서신을 살펴보면 사도시대에 위의 3가지 요소에 첨가되는 몇가지 예배의식이 있었다.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골 3 : 16) 라고 했으니 시편을 노래하며 찬송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신앙고백이 있었고(롬 10 : 9~10; 빌 2 : 11) 주일예배에 헌금하는 일이 있었다. (고전 16 : 2)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에게 있을 것을 기원한 축도가 있었다. (고후 13 : 13; 고전 16 : 24; 갈 6 : 18)

공적 예배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배열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각 교단 혹은 교회에 따라 그 순서와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예배의 순서를 배열하는데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에 대한 예배자의 신앙과 복종, 감사와 헌신의 응답이 성경적이고도 논리적으로 배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배의 제 요소가 서로 독립적이거나 분산적이지 아니라,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배자의 만남이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대교회의 공적 예배에서 지적될 수 있는 하나의 적신호는 이러한 예배의 요소가 하나의 형식과 의식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영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예배의 형식과 의식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배의 제 요소는 예

배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질서있는 방편이다.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약화되고 형식만 중시될 때 예배의 요소는 형식화되고 말 것이며, 결국에는 이사야 1장 11~14절에 지적된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요소는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의 자리를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배자의 응답의 수단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예배의 각 요소가 지니는 의미를 간략히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묵도와 간구

묵도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자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으로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한다. 사회자의 간구는 목회기도나 일반기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간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과 예배자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힘입어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헌신이 그 내용이어야 한다.

2) 찬송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곡조있는 기도요 신앙고백이다.

공적예배에서의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회개, 감사, 헌신등으로 구성된다.

혹자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내용만이 찬송가가 될 수 있다고 하나, 그것은 찬송의 일부분일 뿐이다.

개회찬송은 하나님의 기록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의 찬송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그 외의 찬송은 설교의 주제와 관계있는 내용의 찬송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성가대의 찬양은 예배의 회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중전체의 신앙을 미적으로 승화시켜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예배하는 회중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3) 기도

기도는 “예배의 혼”이라고 부를 수 있다. 기도는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공중예배에서의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중예배의 기도자는 그리스도의 몸안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회중의 기도를 대표하는 것이다. 대표기도는 회중앞에서 자기의 신앙간증이나, 자신의 신학사상의 표현이 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광고적인 성격을 띠어서도 안된다.

대표기도자는 전체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회중의 요구를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중

예배의 기도자는 회중의 기도를 하기 위해 교인들의 공통적인 기도제목이 무엇임을 살펴야 하며 대표기도자로서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대표기도의 내용은 주로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양,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한 죄와 허물의 회개, 교인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 그리고 헌신의 내용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신앙고백

공중예배에서의 신앙고백은 예배자 개인의 신앙을 고백함과 동시에 교회의 신앙고백이요, 회중의 신앙고백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고백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회개와 믿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5) 성경봉독

성경봉독은 단순히 설교 본문의 소개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성경봉독자나 회중은 봉독되는 본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회중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색적으로 받는 시간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 봉독자는 온 회중과 함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정중하고, 의미있고, 정성스럽고, 조심스럽게 성경본문을 읽어야 한다.

6) 설교

설교는 개혁과 예배의식에서는 가장 중시되는 순서이다. 예배의 모든 순서와 행위가 이 말씀선포의 주제로 집중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교는 설교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이다. 하나님은 설교자의 인격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요, 성령님은 선포된 말씀을 예배자의 중심에 적용시키고 감동시키시는 것이다.

7) 헌금

헌금은 예배자의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다. 헌금은 단순히 예배자의 생활과 소유의 일부인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전체를 드리는 행위이다.

헌금은 예배자의 생활과 생명을 대신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곧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엄숙한 행위인 것이다.

8) 축도

축도는 삼위일체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회중을 위탁하는 것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회중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도의 대표적인 성경의 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후 13: 13)이다. (*)



최고의 찬양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이 성 재 장로

〈새한교회 시무〉

1. 예배의 기본원리에 나타난 음악

필자는 「복음성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본지 11월호의 특강 초록에서 예배에 대한 개념을 나름대로 언급한바 있거니와, 「예배와 음악」이란 제호의 청탁에 따라 이를 다시 재정리하고 본론을 서술코자 한다.

「예배」 즉 Worship이란 “가치를 돌린다” (to ascribe worth)라는 뜻이라고 이미 정의했거니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숭배한다”(worship)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상대가 나의 정성과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to ascribe to Him supreme worth)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있는 종교가 가지는 유일하고 충분한 증거”¹⁾로 삼는다. 왜냐 하면 기독교에 있어서의 이 「예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의 법을 세우셨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돌리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가치(worth)의 표현은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임을 재강조하고 싶다. 구약시대 히브리인이 「희생 제사」(sacrifice)를 드렸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가장 위대한 예배야말로 “신령과 진정”(요 4:24)으로 드려지는 바로 우리들 자신(롬 12:1)인 것이다.

그런데 이 「예배」중에서도 가장 고상하고 특수한 표현이 「찬미의 제사」 곧 「입술의 열매」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히 13:15)

그래서 히브리서인은

“너희 권능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지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 할지어다” (시 29:1-2)

라고 노래했고,

“호흡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²⁾

라고 성호를 높였다.

여기에 교회음악의 높은 사명이 있는 것이다.

2. 찬미의 제사로서의 음악

그런데 이 교회음악은 형태와 성격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진다.

이것을 성격적으로 분류할 때 첫째는 외형적인 성격, 둘째는 내용적인 형태로 분류가 된다.

첫째, 외형적인 성격으로는 비공식적 예배와 의식적 예배를 위한 찬송으로 다시 분류되고, 둘째 내용적인 형태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나누어진다.

가. 외형적인 성격에 의한 찬송

1) 비공식적 예배를 위한 찬송

이 음악은 개인찬송 또는 회중찬송이라 칭할 수 있는바 이는 여호와와의 전에서 성가대에 의해 불려진 성전음악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 의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노래한 민중음악”인 것이다.

출애굽기에 새 모세와 이스라엘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여호와께 찬양하며 노래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고 칭화했으며 (출 15:1-18) 거기서 선지자 미리암이 모든 여인들과 소고

1) J. S. Whlao, What is a living Church?, P. 41

2) 참고 : 할렐루야(Hallelujah)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

3) Curt Sachs, Music in the Ancient World East and West P 85

치며 화답송(antiphonally)을 했고 (창15:21)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물물이 솟아나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다. (민2:17)

이 밖에도 구약 곳곳에 하나님을 노래한 민중음악이 즐거우게 흐르고 있다.

2) 의식적 예배를 위한 찬송

다윗은 왕위에 즉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노래를 짓고 찬양대를 조직했다. “다윗은 또한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역사15:16) 했고, 그후 4천 명의 레위인을 뽑아서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 세웠으며 (역사23:5), 계속해서 성전 음악인들을 훈련시키려고까지 하였다. (역사25:1~8)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할 때 언약궤를 옮겨 왔는데 이 때의 예배 광경과 성가대의 찬양이며(역사5:11~14), 히스기야왕의 성전재건과 성가대(역사29:25~30),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과 성가대의 재조직(스3:10~13) 등 성전에서의 성가대음악이 교회음악의 진수(眞髓)를 이루고 있을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회의 성가대가 교회예배에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나. 내용적인 형태로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엡5:19)라고 권면했다. 이 말씀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과 공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에서 「시」는 구약성경의 시편, 「찬미」는 시편 이외의 성경 가운데 있는 찬미의 노래,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새로운 노래로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찬미하는 영가(靈歌)를 말한다.

1) 시(詩: Psalms)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오늘날도 더러 노래 형식으로 읊어지고 있다.

특히 시편 같은 것은 「유대백성의 성가」로서 아직도 카톨릭과 성공회에서는 초대교회의 멜로디형식으로 부르고 있다. 성공회 성가곡들 가운데는 이런 영

가(詠歌)들이 많이 들어 있다.

이 영가들은 현대 악보표기형식으로 쓰여져 있으며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다.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현대 서양음악의 운율에 따서 음악에 맞춘다.

마르틴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새 283장 Ein Feste Burg)의 경우, 원래 이 노래의 가사는 독일어 성경 시편 47편에서 따온 것이다.

당초 운이 잘 맞게끔 독일어로 쓰여졌으나 이가사가 다시 영어로 번역되고 한글로 중역되면서 원어와 차이가 나는 노래가 되었다. 이렇듯 번역이 중역이 되는 과정에서 그 본래의 뜻이 약간 불명료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 번역상의 문제점인 것이다.

2) 찬미(讚美: Hymn)

찬미는 전술한 바 비공식적 예배를 위한 찬송을 말한다. 지면상 이를 자세히 상술할 수는 없거니와 「찬미」란 “신구약 성경에 있는 노래를 기초로 하여 복음신앙에 의한 교리적 발전에 수반하면서 그때 그때 교회예배에 필요하게 창작된 하나님의 영광송”이다. 특히 개신교회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통상적인 예배에는 찬미가 널리 애창되고 있다.

예컨대 근대 독일어 코랄(Chorale:衆讚歌)중 우리 새찬송가에 수록된 찬미는 4장(거룩 거룩 거룩) 181장(주 예수 돌아가심은), 191장(지금 잠을 깰지어다) 등을 들 수 있다.

3) 신령한 노래(靈歌: sacred songs)

교회역사 특히 근세음악사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복음성가」(Gospel Song) 또는 「영가」(Spirituals)란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와는 근본적으로 그 유가 다르다.

“초대교회시대의 영가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에 연대된 노래를 뜻한다”⁴⁾

사도들이 쓴 글에서 영으로 노래한 내용들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때,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새로운 노래를 통한 하나님과의 수직적 윤리관은 더욱 굳게 정립될 것으로 안다.

원문상 운율적인 신앙고백이라 할 때에는 빌립보 2장 6절~11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히브리서 1장 3절~4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후반~25절 등을 들 수 있겠고, 또한 그리스도찬가인 「새노래」로서는 요한

4) 教會の音楽, 北村宗次, 日本基督教団出版局, P. 26

5) 상계서 P. 27

제시록 5장 9절~10절, 그리고 곧 이어서 12절~13절을 비롯 7장 10절, 11장 15절, 12장 10절~12절, 15장 3절~4절의 「어린 양의 노래」를 들 수 있다.

이상의 예배음악을 한데 묶어 총칭한다면 “찬송가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세세토록 높이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적 신앙행위”⁶⁾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반드시 「찬송」이라는 음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찬송은 반드시 가장 최고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예배에 있어서의 찬송가 선택의 실제

예배찬송은 다시 성가대의 찬양을 교독문 그리고 회중의 찬송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성가대의 찬양곡은 교회력(敎會曆)에 따르는 절기찬양곡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기본적인 상식이겠으나, 그 주일에 전해지는 목회자의 메시지와 뜻이 같은 노래를 골라 맞춘다는 것은 무리이며 어불성설이다. 왜냐 하면 성가대는 메시지와 동등한 위치에서 예배드려지는 한 기구이며 이들이 노래하는 찬양곡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Doxology)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독문은 교리적이며 신학적인 배경이 있고 또한 찬송가 후면에 발췌된 것도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다.

셋째,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은 회중의 찬송이다. 예배에 참석한 회중이 다 함께 찬송을 부르는 일은 “프로테스탄트교회의 음악의 형태이며 특징이다”⁷⁾

그러나 이 예배찬송이 예배에 잘못 선택되어 불리워지는 사례란 한국교회의 일반화현상인 것 같다. 특히 새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그 많은 복음성가가 찬송가로 우대되어(?) 굳세게 불리워지고 있는 실정은 건전한 예배와 신앙성장을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제일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어떤 곡을 어떻게 선택해 불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예배에 있어서의 회중찬송은 ① 하나님의 영광(Adoration) ② 신앙고백(Confession) ③ 기원(Supplication) ④ 감사(Dedication) 등으로 구분해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세분화하면 첫째, 새찬송가에서 「제 1부 예배」의 1장에서 46장까지 (45장은 회중찬송이 아님)

의 찬양과 경배면 그리고 644장, 645장 등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주일대예배를 기준으로 선풍곡을 한다면 설교전까지의 찬송은 당연히 여기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침, 저녁, 주일, 폐회 찬송등은 예배시간에 따라 적절히 선풍곡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교회절기가 아닌 성부(80-105)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106-118)편은 설교의 내용도 참작코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다지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신앙고백」과 「기원」 「응답」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공동적표현의 첫걸음이며 간구하는 마음에 새로운 계기를 갖게 하는 부분인바 찬송 역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불려야 한다.

예컨대 220장, 221장, 249장, 310장, 319장, 344장, 345장, 355장, 357장, 377장, 383장, 409장, 532장, 602장, 667장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외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감사하는 부분이므로 여기에는 반드시 「헌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83장, 85장, 302장, 375장, 322장, 406장 등이 이에 준한 찬송이다.

4. 결 언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최고 목적을 달성하는 신령적행위인 것이다”⁸⁾

그러므로 마치 성찬식이 예배의 기준인 것처럼 찬양은 예배의 특징이며 찬양의 수단은 찬송가이다.

그래서 교회는 음악지도자를 통해서 정기적인 찬송가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근간 한국교회가 성경공부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면서도 회중 찬송가 훈련에는 인색하거나 소홀한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회중찬송은 종교개혁에서 열여섯 최고의 선물이다. 예배 중 회중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결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설교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때문에 모든 성도가 부르는 찬송에 대한 의의와 배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빠르게 이해하여 잘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교회의 책임일 것이다.

최고의 노래를 가장 높이신 하나님께 알뜰히 드리자

*6) 상계서 P. 94

7) J. N. Ashiton, Music in Worship, Pilgrim Press, 1943, P. 92

8) K. L. Parry, Prayer and Praise, Micklethorp, P. 230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예배를



장 정 일 목사

〈노년부지도 · 5지구심당〉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존엄한 예식이다.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때로부터 엘리야와 바알 · 아세라 선지자 850인의 갈멜산 대결에서 극적인 장면을 보이고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진단하면서 참된 예배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참된 예배란 ?

1)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의 대상은 인간이나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당신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기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의 대상이다.

2) 참된 예배의 주체이신 중보자 구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요 우리를 죄악에서 사유하신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오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주관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3) 참된 예배의 인도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경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건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통회 자복케 하시며 새마음과 새영을 주어 새생명과 새생활을 영위케 하시는 성령님, 결실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넘치도록 주시는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라야 참 예배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중보자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성삼위일체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

2. 참된 예배의 태도

예배의 요소를 크게 나누면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순서들이요, 두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것들이요, 세번째는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 주는 것들이다.

1) 내용면에서의 예배 태도

① 할렐루야의 예배 태도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다. 예배의식 중에서 찬양과 기도는 특별히 올리는데 강조점을 둔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노래한다. 또한 모든 천사도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엎드려 경

배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계 7:9-12) 찬송하였다. 우리의 예배는 할렐루야가 충만한 심령으로 드려야 할 것이다.

② 아멘의 예배 태도

주님은 아멘이시다. (계 3:14) 아멘은 ‘그렇습니다, 진실로’의 뜻이다. 아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시는 성경과 설교 말씀을 받는 믿음의 응답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이 아멘의 신앙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 1:19-20)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응답이요. 온 성도에게는 은혜가 되니 아멘이 풍성한 예배를 드리자. 이 아멘은 나의 생각과 뜻에 일치하지 않아도 해야 한다. 신명기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저주를 선포할 때마다 12번이나 아멘으로 응답했다.

③ 축복의 예배 태도

축복은 기독교적인 독특한 용어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나 이방 종교는 복을 만들 줄 알고 헛된 노력을 한다. 참된 복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축복은 성도들의 특권이다. 다만 은혜받고 혼자만 만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취할 태도가 아니다. 목사의 축도를 받은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불신자에게 그 복을 빌어 주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바로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내용면에서의 태도 3가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리는 할렐루야의 예배와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아멘의 예배와 한알의 밀알로서 남을 살리고 살지게 하는 축복의 예배 태도가 풍성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넘치는 은혜가 이루어진다.

2) 형식면에서의 예배태도

내용은 귀하다. 그러나 형식도 귀하다. 목마른 기도온의 300용사는 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손으로 물을 움켜 마셨다. 그러나 그들이 그릇을 무시하고 계속 손으로 물을 마셨다면 잘못이다.

참된 예배의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참된 예배의 형식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오늘날 교회들의 예배 형식에서 문제점들을 헌법 예배모범을 중심으로 몇가지를 지적하면서 제안하고자 한다.

①예배 전의 준비

무슨 일이나 서론이 중요하다.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미 은혜를 받고 있다.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첫째, 예배전에는 미리 마음과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거리낌이 없도록 하자.

특히 주일 예배는 물론 성수 주일을 성경에 가르친대로 거룩하게 지내자.

둘째, 개회전에 책임자는 예배당의 정돈, 정결, 음향, 조명등을 다시 확인하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한 시간 15분 전에 참석함이 좋다.

지각은 습관이다. 늦은 사람이 다음 예배에도 늦는다. 좌석은 앞자리 부터 차례로 당겨 앉아 다음에 오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게 하자.

② 예배 중의 태도

첫째, 개회 시작부터 축복기도할 때까지 공식 예배에 온전히 참석함이 옳고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을 삼가자.

둘째, 단정하고 엄숙하고 건강한 모양을 지키며 자신과 목사와 참석한 모든 사람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목기도로 복을 빌자.

셋째,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것이요, 컵속말이나 인사나 결혼식이나 줄거나 웃거나 그밖에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 하지 말자.

네째, 안내원과 헌금위원은 미리 나와 봉사하고 성도들은 그들의 인도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

다섯째, 공중기도는 특별기도회가 아니면 길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3~5분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개신교는 말씀 선포에 비중을 크게 두기 때문이다.

여섯째, 공중기도자는 설교자처럼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 조목을 정리하여 중언이나 부언을 피하는 것이 좋다.

③ 폐회 후의 태도

축도가 끝나고 폐회송이 울릴 때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드림을 감사하고 받은 바 은혜를 묵상하며 결심을 새롭게 하여 세상에 나가 가정과 직장 사회속에서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나가자. 폐회되면 옆의 분과 눈이 마주치는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 권속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의 교제와 기쁨과 감사를 교환하고 피차 평강을 축원하자. (*)

1981년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자—이 건 숙 여사

당선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

- 이견숙(李健淑)여사(41세) 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 교회 협동목사로 수고하.....□
□.....시는 신성종 목사님의 사모라고 해야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는 분이 될 것이다.....□
□..... 1981년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부문에서 「양로원」으로 영예의 당선을.....□
□.....하시어 한국 문단에 데뷔하게 됨을 축하드리고 크리스찬 작가로서 앞으로의 작.....□
□.....품활동 계획등을 알아보고 소개하기 위하여 월간중현 편집실에서는 신목사님덕.....□
□.....을 월간중현 편집위원인 김중주집사님과 함께 방문하여 이견숙여사의 개인과.....□
□.....가정과 작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당선은 전혀 뜻밖의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동안 며칠 병이 나서 누워 있는 중 신문을 보고 쓰고 싶은 생각이 나서 마감시간에 쫓기며 응모한 것이 당선되었다고 하신다.

『이런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 며칠동안 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쓰고 싶은 충동을 주셔서 쓰게 하시고 뽐히게 하셨나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던 중 어느 크리스찬 여류작가를 만나 이야기하는 가운데 참 할 일이 많고 글쓰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문단에 데뷔했다고 말할지라도 저로서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일이고 이번의 작품은 습작도 거치지 않고 썼기 때문에 문장도 좋지 못하고 여러가지 약점이 많아요. 앞으로 당분간은 글쓰는 선배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여사는 1963년 서울사대 독어과를 졸업하시

고 그동안 교직생활을 하시다가 1967년에 도미했다가 1969년에 잠시 귀국하신 신목사님과 함께 미국에 가서서 생활하며 밀라노 대학원 도서관학과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했다. 1974년에 귀국하시기까지 미국생활에서 “아마도 제일 고생한 것이 우리 부부다” 할 정도로 미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운데에서 공부하셨고 그런 귀한 경험 중에 하나가 이번에 당선된 「양로원」의 소재가 된 것이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중 양로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겪은 일이 이번 작품의 소재가 된 셈이지요. 주제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외로움, 그리고 단지 미국의 물질주의의 종점이랄까 그런 것이 되겠지요. 미국사회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늙어도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 자녀하고 같이 살 필요가 없고 또 자녀들도 자기 개인생활을 침해 받으면서 부모와 같이 살려고 하지 않지요. 피차간에 원망도 없



고 원하는 것도 없지요. 그러다가 늙어서 혼자 살다가 병이라도 난다거나 하게 되면 양로원으로 갑니다. 양로원은 돈을 내는데 무척 비쌌습니다. 양로원에 들어 올 때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은행에 넣어두고 매달 양로원에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죽기전에 묘지, 장의사까지 다 명세서에 밝히고 돈을 지불해 놓습니다. 죽은 후 연락만 하면 다 알아서 하고 자녀들은 그저 장례식에 참석만 하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로운거지요. 한국도 언제 그렇게 될 지 모릅니다. 점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 제 작품의 이 소재가 다소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나 편지로 격려해 주고, 일본에서도 편지가 오고 하더군요요.]

그동안에 목사님과 결혼하신 후 10여년 동안 학생생활을 하고 미국에서, 또 귀국하신 후 계속 바쁜 생활이 이제 다소 정리되어 금년엔 조용히 책이나 보며 쉬려 했는데 더욱 바쁘게 됐다고 걱정하시며 앞으로 1년간은 글공부를 하며 성경 속에서 소재를 찾아 기독교의 정신을 본바탕으로 한 글을 썼으면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상업적이고 감각적이며 허무주의의 바탕에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많은 이때에 참다운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작가가 탄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기쁜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전에도 「한국문학」에서 청탁이 와서 작품을 쓰던중 글을 마치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품의 결론이 자신이 생각할 수도 없게 잘 맺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구나. 정말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며 인도해 주시리라고 끈기에 최선을 다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이란 것이 잘은 모르겠지만 경험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문학적 허구를 가감하여 인간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써 보고 싶습니다.』

2남 1녀의 어머니로 또 목회자의 부인으로 집에서의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도 애써야 하는 입장이 됐다.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불신감이 갈수록 더해 삭막해져가는 이 사회에 부디 훈훈한 인정과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글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좋은 작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리라.

헤어져 나오는 마음에 불안서식 뽕죽집의 다락을 개조한 넓은 서재와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격의 없이 대해 주시는 모습이 꼭 인상적이었다.

대담·정리 / 이 형 수 집사 (월간충현편집부장)

현재 기독교교육은 전제인가

문 창 수 목사

서언

한국 교회는 선교 100주년을 맞으면서 전에 없는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오늘의 우리 교회는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은 아닐까? 우리 교회는 새 시대 교인들의 기대와 요구(needs)를 충족시켜주고 있는가? 오늘 교회의 머리는 정말 예수님이 되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교회에서 은퇴를 당하여 「명예교문직」에 계신 것은 아닐까? 동등의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의 우리 교회는 감격과 환희를 상실한 것 같은 감이 든다. 10여년 전만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나 생각된다. 10여년 전엔 교회에 감격이 있었고, 환희가 있었고, 눈물과 웃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오늘은 대체로(예외도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우리는 그간의 변화를 교인들의 태도와 느낌과 생활에서 쉽게 읽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전통적인 교회에서(종전의 방법과 교육구조를 고수하는) 무표정한 얼굴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은 필자만의 느낌은 아닌 것 같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하신 주님의 음성이 귓전에 들려오는 듯 하다. 필자는 4년여간 미국에 체류하며 우리와 다른 문화권 속에 살면서 좋은 의미에서는 나쁜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보다 저기 몇 발자욱 앞서가는 교회를 보고 필자 나름으로 보고 배운 점들이 있다.

필자가 유학에서 돌아와 지난 8개월간 몇몇 신학교에서와 몇몇 교회에서 구역장 훈련을 수십시간씩 가지면서 유학때 배운 것들을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실시해 보았다. 필자는 그를 성경공부(Work Shop)를 실시하면서 간간히 학습이론과 지도자론과 그를 성경공부 지도법을 가르쳤다.

첫째, 학습이론의 요점은

교육은 근본정보(information)를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또는 말씀사역)을 하나의 과

정으로 보면서 연령계층이나 교인들의 신앙의 정도 등 개인차를 고려하여 거기 맞춰 양육한다는 것이다. 즉 교인들의 사고방식의 변화(idea change)나 신앙체계(belief system)를 직접 주입시키거나 조작(manipulation)을 통해 교인들을 이리 저리 조종하는 등의 방법을 지양하고 지도자와의 동일시 작용을 통해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인격의 변화를 의도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육의 목표를 정하여 일관성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했다. 즉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교인들이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숫자부흥 위주가 아니라 민주국가가 책임있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듯 성숙한 신자(누구의 처방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를 양육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므로 주입식(indoctrinization)을 통한 어떤 개인의 주관이나 해석의 흡수를 강요하지 않고 성경을 각자의 신앙수준과 신앙의 분량에 따라 스스로 소화 흡수하게 장려하는 전략이다. 필자는 이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에 더 가깝다고 믿는다.

둘째, 지도자론에서는

성경에서 “종”으로 말씀하는 지도자개념 즉 모범을 통해 교인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교인들을 인도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마태 20: 25, 26.; 23: 10.; 요한 13: 14~15)에 의지하여 권위주의적 지도방법을 점차 지양하고 교인들의 과오를 지적하거나 판단을 선언하는 일보다 성숙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해와 포용과 권장하는 일에 더 역점을 두었다. 여기서 바울의 지도자 스타일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하는 자세였다는 것을 기억하자.

셋째, 만인제사장론에 입각하여 모든 교인들의 은사를 활용하는 일을 모색하였다.

미리 짜여진 교재(기성복)를 주입시키지 않고 일종의 “교재”(옷감)를 대충 준비하고 그 “교재”를 각자의 수준에 맞춰 스스로 소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추는 식을 말한다. 교인들의 생활체험을 공유(Sharing)하게 하면서 그룹원들을 전원 참석시킨다. 그리고 경쟁(“나”를 강조)보다 협력(“우리”를 강조)을 강조하는 “서로, 함께”식 방법을 전개해 나갔다. 구역장 훈련을 통해 의외로 “나”의식이 너무 강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시간은 대개 한시간 반 내지 두시간 반까지 잡았다.

그룹을 통한 제자와 방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훈련하시면서 보여주신 바 있다. 그리고 주후 3세기까지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고 교회건물이나 제도화된 교회가 따로 없었다는 사실에서 시사해주는 바가 많다.

구역장 훈련의(3·4일간 훈련기간 중) 참여자들이 내린 평가를 통해 얻은 재료를 요약해 보면,

- (1) 이 성경공부는 처음 해보는 방법이며
- (2) 기성신자나 초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참 좋다’고 한 것과
- (3) 훈련받은 교회마다 모두 이 방법을 채택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했거나 또는 목사님을 재량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등이다.

여기 부연해서 성경공부가 ‘참 재미있었다’는 것과 웃음과 간간히 눈물도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필자의 의견을 여기 한가지 더 첨가하면 이 방법이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점차 생활과 인격에 변화를 가져 온다는 점일 것이다. 기독교에 대한 최근의 정의를 소개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과 가지는 인격적 관계(personal relationship)이다. 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몇 발자국 앞서 나아가는 지도자들과의 인격적 접촉을 통해 변화될 기회를 많이 갖기 때문이다.

필자가 실시한 구역장 훈련을 받은 교회들 중엔 장년 1,000명 내외의 교회들도 있었고 400여명의 중간 크기의 교회, 200여명 내외의 소교회들도 있었다. 그리고 교회연령은 60여세로 되는 ‘장년’교회도 있었고 3, 4년 된 교회도 있었다.

미국의 일부 교회에는 지금도 조용한 혁신이 일고 있다. 교육이론의 변화에 따른 변화, 즉 지도자 역할과 교회교육구조, 교회의 목표와 교육방법론등의 변화에서 볼 수 있다. 혁신이 불가피한 이유는 종전의 교육방법(또는 목회방법)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종전의 방법이 성서적 방법에서 다소 빛나고 있었으므로 새로 발견되고 있는 성서교육이 이론에 따라 부족한 점을 보완하거나 시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믿을 수 없는 말 같지만 사실이다.

예수님의 교육이 강의나 설교 일변도 등 주입식 교육(학습자들의 태도나 느낌을 무시한)만은 아니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다. 이 짧은 목회사역이 끝날 무렵에 하신 예수님의 한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마태 16:16)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널리 외치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시사적이 아닌가?

필자가 구역장 훈련에서 실시한 「월샹 스타일」 성경공부에는 다음의 교육원리들이 내포되어 있었다.

첫째, 교육은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즉, 목표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귀국 후 동료교역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받은 인상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과 목표가 있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목표달성과정을 평가할 객관적 기준이 없으므로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 등이었다.(그럴 수 밖에 없었다.)

둘째, 가치관의 전수과정을 염두에 두었다.

전통적인 교회교육은 훈계조식 교훈(moralizing)방법인데 이 방법보다는 모본방법(modeling)과 가치명료화교육(value clarification)에 더 역점을 두었다.

세째, 폭 넓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 종전의 주지주의식 교육을 지양하고 그룹활동을 통해 소위 제자화 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서 ‘소그룹 활동’은 그냥 적은 수의 무리가 둘러 앉아 ‘한다’식의 막연한 공부가 아니라 신학에서 나온 교육철학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행착오를 뒤에 가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네째, 신앙교육은 평생 계속되는 것이므로 성인교육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일주 몇번의 예배(구역예배포함)로는 부족하다.

다섯째로 대인상호작용(interaction)을 갖는 교육구조를 설계하여 전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공동체를 창조한다는 원리였다.

지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도화 되어가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란 성경의 유기체로 교육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머리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몸이 자라게 된다.(엡 4:13~)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소망에 부풀어 본다. (다음 호에 계속)

한인교포에게 전도하기 위해 중공으로

감격어린 세례·성찬식을 베풀며

아세아·극동방송의 효과가 매우 커

필자는 1980년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동안 중공을 방문할 수 있었다. 필자로서는 두 번째의 방문이었는데 방문한 지역은 상해, 심양(구 봉천), 하르빈, 북경, 광주지역이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① 제 1차 방문시 (1979년 4월) 공산권 안에서도 개인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만주지역에 거주하는 200만 우리 교포들을 찾아 짧은 기간이지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과 ② 본인이 아세아연합신학원 (ACTS)에 부설된 공산권선교연구소를 통해 얻은 지식에 의하면 우리 교포 가운데는 목사가 한 분도 없으며 대부분의 신앙지도자들은 순교를 당했거나 아니면 공산당 혁명 당시 출국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성도들은 30년전에는 세례도 미처 받지 못했던 연약한 신자들이 대다수인 것을 확인하고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거행하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

참하는 깊은 신앙체험을 갖게 하려고 한 점과 ③ 오늘날 세계 교회의 이목이 중공선교에 집중되고 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 선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일에 가장 선두적 입장에 서 있는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의 전도효과를 재 확인하여 중공 교포 선교뿐만 아니라 같은 공산체제를 갖고 있는 북한선교의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번 중공선교여행에는 필자의 아내도 동행하여 이 일을 함께 돕게 되었음을 여기에 밝힌다.

보고는 각 지역별로 나누어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과 느낀 점들을

1. 상 해
2. 심 양
3. 하르빈

의 순서로 적고자 한다.

1. 상해- 3 개의 공식교회가 문 열어

상해의 거리 풍경은 1979년도에 갔을 때와 별 다른 것이 없었다. 다만 파마 머리를 한 여인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 여름철이라서인지 제복보다는 색색있는 옷들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고 외국인을 만나면 부러운 눈초리로 따라 다니면서 구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필자는 여기서 인민공사(집단농장)를 두 곳 방문하였다. 중공에는 이런 인민공사가 30만개가 있다. 이 인민공사에서 가련하다는 생각만 들 뿐 훌륭하다고 박수를 보낼 수가 없었다. 결혼은 대개 같은 집단 농장내에서 하게 되며 이혼은 거의 없었다. 남자 65세, 여자 60세가 되면 소위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누구나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상해에는 3 개의 공식교회가 열려 있었다. 필자가 방문하던 주일에는 1,5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세 교회에 각각 모였다. 다른 두 교회가 곧 문을 연다는 이야기를 그곳 중국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다. 예배시간은 새벽 7 시인데도 인산인해였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곳에서는 종교박해와 같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상해의 한인교회당은 아직도 열릴 가능성이 희박했다. 이는 삼자애국운동본부에서 소수 민족교회가 문 여는 것을 허락치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비가 내리는 날 한인교회당을 찾아가 보았으나 교회 문에는 굳게 못질이 되어 있어 들어 갈 수가 없었고 교회 부속 건물엔 한국인 여성도 한 분이 교회 사찰로 지난 30년간 계속 부속건물에서 살고 있었다. 상해에는 우리 교포가 약 200명 가량 살고 있으나 그

이 중 윤 목사

(철박·아세아연합신학원 교수
본 교회 협동목사)



들 대부분이 중국인들과 결혼하여 자녀들이 한국말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었다. 그중에 기독교인이 약 30명 있는데 우리는 그들 전부를 식당에 초대하여 저녁 대접을 하였다. 그날 24명의 성도가 참여하여 이미 예약된 음식 257볼(미화)어치를 먹었는데 30년만에 처음으로 맛있게 그리고 배부르게 먹었다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함께 즐거워 할 수 있었다.

세례·성찬식 베풀어

그날 저녁 필자는 그들을 어느 성도의 가정으로 초대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례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12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고 23명이 성찬에 참여하였다. 예배는 집례자와 회중이 모두가 눈물 바다를 이루면서 진행되었다. 그곳 우리 교포 지도자중 한 분은 “이목사님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즉 예수님의 삶과 피를 선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라고 인사했고 한인교회당을 지키고 있는 사찰 할머니는 “세례도 못 받고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주셨다”면서 감격하였다. 실로 감격적인 일이었다.

한편 상해국제여행사 부사장으로 있는 「유동무」라는 분이 이미 내 정체를 알고서 처음부터 치근치근 따라 붙었다. 김일성사상을 말해주면서 북한은 지난 30년동안 간장, 고추장, 소금값, 쌀값, 방세가 1원도 안 올랐다고 자랑했으나 필자에게 세례를 받은 어느 성도의 말에 의하면 “남북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남한은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북한을 두번이나 방문해 보았는데 아마 지금 전쟁이 난다면 북조선 사람들은 총을 모두 거꾸로 돌려 댈 것입니다”하면서 그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넌지시 알려 주었다. 또한 북한방송(평양)도 들을 수 있으나 너무 정치선전만 계속하고 음악도 매일 같은 것만 들려줘서

이젠 중국에 사는 교포들은 평양 방송을 거의 듣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보내는 극동·아세아방송과 서울제2방송을 그들은 너무나 고마워하고 즐겨 듣는다고 한다. 심지어 그들은 방송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라디오 앞에 모여 앉아 하루의 피곤을 푸는 시간이라고 한다. 은혜스러운 찬송가와 감격적인 설교의 음성을 듣고 저들은 함께 울음을 터트린 적이 여러번이라고 전했다. 필자의 이름을 저들이 모두 알고 있어 놀랐지만 알고 보니 매주 월요일 아세아방송을 통하여 필자가 보내는 음성들을 듣고 알았다고 한다. 참으로 감개무량했다.

2. 심양—눈물바다 이룬 가운데 예배드려

심양은 중국의 옛 서울이다. 이 고도는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이 심양에는 우리 교포가 약 5만명쯤 살고 있는데 대부분 농촌에서 살고 있었다.

심양 시내에 있는 북시장 근처에 북시교회라는 간판을 건 한인교회가 하나 열려 있는데 교인은 약 70명이 모이고 장로님이 5분 계셨다. 이 북시교회는 오교사라고 불리우는 50대초의 여인이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다. 필자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드렸더니 그분은 심한 오열속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아멘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공식교회와 아직도 숨어 있는 가정교회 사이에는 심한 갈등과 마찰이 일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서탑교회(한인교회)도 문 열어

또한 이곳에 있는 서탑교회를 방문했다. 본당은 자물쇠로 잠겨 있고 하층은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건물이 너무 낡아서 정부에서 가까운 장래에 헐어버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그러나 심양의 K 집사로부터 1980. 11. 26일자 필자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심양의 서탑교회는 국가

에서 한인교포성도들에게 돌려 주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한다)

서울에 친척을 두신 몇 가정을 주소를 들고 찾아 갔으나 모두들 작업장에 나가고 집에는 어린 아이들 뿐이었다. 조그마한 단칸방에 목침대 두개씩 놓고 부부가 사용하는 것과 나머지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을 눈으로 볼 때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우리 일행이 묵고 있던 호텔의 지배인이 한국인이었다. 그분의 도움으로 택시로 농촌지방에 있는 가정교회를 주소 하나만 가지고 찾아 갔다. 심양 시내에서 80km 떨어진 곳이라 택시 운전수는 시간이 너무 늦어 갈 수도 없고 지리도 잘 모르겠다고 하여 주춤거리는데 뒤에서 누가 「조선사람이요?」라고 묻는 것이 아닌가, 돌아다 보니 호텔의 지배인이란 면서 한국말을 잘 해 큰 도움을 얻었다. 이미 그 지역 가정교회 지도자의 이름과 주소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 도착한 지역은 한국인들만 500세대(2500명) 살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로서 한국인 소학교가 하나 있는 농촌이었다. 가정교회 지도자의 집을 찾아 가니 기독교인 약 30여명이 모여서 어느 성도의 집에서 가정제단을 쌓고 있었다. 문을 열고 그집을 찾아 들어 섰을 때 필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방바닥에 엎디어 기도하는 자세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찬송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그들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라디오를 통해 성경 전부를 기록

그분의 안내로 다른 두 성도가 찾아 왔다. 문안에 들어서자마자 통성기도를 하는데 나는 함께 기도하면서 손수건이 젖도록 함께 울었다. 그들의 외로움도 외로움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자기들을 돌보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들로부터 지난날의 박해와 고난 받은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정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고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다. 예배를 잠깐 드리자고 했더니 성경을 들고 나오는데 성경이 이상하여 자세히 보니 방송을 듣고 한자 한자 맞춤법도 맞지 않는 글씨로 베껴진 것이었다. 친구약 전체를 베껴 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베껴가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찬송가는 최근 석탑과 철령에서 남몰래 등사를 해다가 꼭조없는 책을 만들어 부르고 있었다. 우리가 홍콩이나 미국을 통해 수천권의 성경, 찬송을 보냈지만 인편으로 들어간 것 이외의 대부분이 세관에 묶여 있거나 반송되었고 오히려 그 일로 현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외에서 불온문서를 계속 받는다는 혐의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양의 K장로님은 3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고난을 받은 것도 결국은 성경책을 외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으며 「교회내에서만 전도하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분을 공식교회에서 반동이라는 이름하에 인민재판까지 받게 했더니, 오늘날 중공내 성도들은 서로 반목하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가하면 외국선교 단체들과 어떻게 해서라도 줄을 이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든가 또는 경제적 원조라도 받았다는 소위 사이비 종교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저들은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하여 작게는 전자계산기나 잡지책을 보내 달라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어떤 이는 칼라 텔레비전까지 보내 달라는 간청까지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중에는 귀한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으나 그중에는 서울이나 국외 방송망을 통해 줄잡는 기회로 삼고자 신자단체 하는 이들도 있다면서 그들을 특별히 경계해 달라고 현지 성도들의 당부도 받았다. 우리가 보내는 전파는 불신자도 모두 청취하고 있으므로 지명이나 인명을 구체화 시키는 것은 특별히 조심해 달라는 부탁도 받았다.

그동안 장로님을 통해 세례받은 일도 있어

다음날 오후 5시가 넘어서 호텔로 찾아 온 교포들에게 (그들은 모두가 한국에 가족을 두고 헤어져 사는 이들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발전상과 세계의 실정을 말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한국땅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심을 예를 들어 말해 주었다. 그들과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진지하고 귀한 시간들이어서 우리는 저녁 먹는 것도 잊어 버린 채 어제 갔던 농촌 가정교회로 다시 택시를 물었다. 어제 약속을 했던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을 했더니 성도들은 방안에 가득 쪼그리고 앉아 묵도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들의 눈동자를 보니 이는 마치 내가 깊은 호수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들은 사막에서 생수를 마시듯 나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었다. 11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24명이 성찬예식에 참여했다. 상해에서 사용하던 포도주를 한 병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잔을 대신하여 사발에 포도주를 따라 서로 한 모금씩 마시는 방법을 택했다. 떡을 구하기가 힘들어 외국인 상점에서 카스테라를 사는데 호텔에서 식사가 부족해서 빵을 더 사먹는 체 하느라고 겨우 눈을 피해 사는 촌극도 밟았다. 세례를 받은 한 청년은 신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간청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도 보였고 어느 성도는 너무 세례를 받고 싶

어 목사는 없고 기회는 주어질 것 같지 않아 장로님에게 찾아가 애원했더니 장로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웃지 못할 서글픈 소식도 전해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그들의 소원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다. 그들에게는 단 소원이 필요 없고 성경과 찬송가 100원씩만 보내 주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현재 예배처소로 사용하고 있는 P씨 집을 그분이 교회로 바치겠다고 내어 놓았으나 너무 협소하여 조금 확장하기를 원하나 중국돈 2000원 이상의 경비가 든다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 일을 이미 서울을 떠나기

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무명의 성도가 헌금을 해 준 것을 그 자리에서 전달했다. 미화 2천불을 받아 든 그들은 다시 한번 감격하였고 나는 준비해 가지고 간 파카 볼펜을 하나씩 선물로 나누어 주고 메고 간 성경책과 카세트 설교 녹음테이프, 찬송가 녹음테이프 그리고 기독교 신앙서적들을 나누어 주면서 뜨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나는 K장로님을 위해 특별히 봉투 하나를 더 만들어 그분이 성경을 지고 만주 벌판으로 다니시는데 여비라도 보태 쓰도록 미화로 드렸다.

(다음호에 계속)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를 보급합니다

충현교회 출판국에서는 충현의 강단을 통해 말씀 되어지는 설교 및 강해와 찬송등을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 보급하고 있습니다.

● 보급하고 있는 종류는

- ① 김창인 목사의 주일설교 및 수요강해
- ② 협동목사의 주일설교
- ③ 부목사의 주일저녁설교 및 수요설교
- ④ 성가대의 찬송가 선곡 (1) (2)집 및
영아·유치·초등부 찬송

종 류	보급 가 격	내 용
90분짜리	1000원	설교포함, 예배순서 전체
60분짜리	700원	설교만
찬 송	1000원	영아·유치·초등·찬송가(1)(2)집
녹 음	60분 300원 90분 400원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녹음만 할때

● 설교녹음 카세트 테이프는 누가 필요한가

- ①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일가 친척과 친구를 위하여
- ② 해외에 있는 친지나 성도, 그리고 한국인 기술자들을 위하여
- ③ 전후방 국군장병들을 위하여
- ④ 벽지의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을 위하여
- ⑤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장 동료들을 위하여
- ⑥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위하여
- ⑦ 교도소, 보호소등과 같이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 ⑧ 메마른 나 자신의 심령을 위하여

● 보급소는

교회 들 우측 「카세트 보급소」에서

● 문의 및 신청

월간충현편집실 전화: 260-3407, 3408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출판국

반석위의 한국교회

손 경 수

한국내에 개신교의 교세를 약 8백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회설립 1백주년을 앞두고 급성장한 한국교회는 짧은 기간동안 복음이 확산된 것이다.

참으로 기쁜 일이고, 열심있는 목회자와 신자들의 수고의 열매라고 생각되어진다.

이제는 사회 어느 구석에 가도 그리스도의 일군들이 묵묵히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방송곡에 가도 신우회가 조직되어 1주일에 1회씩 성경공부를 하고, 식사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즐거운 성도의 교제를 갖고, 병원, 교도소, 군대, 경찰서, 일반기업체에도 교인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국가공무원들이 있을 때, 한국의 사회는 깨끗하고 신뢰가 충만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남을 정죄하는 일이 없어지고, 비리가 없어지며, 거짓말이 없어졌을 때, 이 세상에서의 살기 좋은 풍토가 조성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을 슬프게 하는 것들도 없지 않다. 농부가 추수할 때 알곡사이에 낀 가라지를 가려내는 수고가 있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고, 사이비와 이단이 진리를 압도하는 기현상(?)도 가끔 있다.

최근에도 소위 초교파협회라는 단체에서 81년도에 12억원 자금을 풀어 선교비 명목으로 기성교단에 투입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잘 아는 일이지만 초교파협회는 통일교의 산하기관으로 통일교 포교활동을 행동화하는 위장 기독교 단체인데, 이들은 교인 1사람을 유혹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쓴다는 것이다.

사리를 분간 못하는 일부 교역자와 가난한 개척교회 교인들이 이들의 금전미끼에 현혹된다는 설도 있다. 근심해야 할 일이다. 황금만능이 지상의 낙원이 아닌 이상, 비록 가난한 생활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반석위에 세우는 현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전능왕 오소서

(새 7장)

전능왕 오소서 우리로 찬송케 하옵소서

마귀를 이기신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흔히 잘 부르는 찬송가로서 가장 훌륭한 찬송가 중의 하나라 하겠다. 왜냐하면 이 찬송을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찬송이 맨 처음에 불려지게 된 것은 영국에서 부터이다. 한 무명의 작시자가 이 찬송시를 썼고 1757년 찰스·웨슬레(Charles Wesley)의 찬송과 같이 「삼위일체에 대한 찬송」(A Hymn to the Trinity)이란 제목으로 인쇄되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그후 이 찬송은 그 당시 영국 국가(God Save Our Gracious King)의 운율을 모방하여 불려졌던 것이다.

이 찬송이 훌륭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있다.

제 1절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 2절에서는 “도성인신하서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3절에서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각각 찬송하고 있다. 그리고 제 4절에서는 삼위이신나 일체로서 우리를 천국 영광을 보이시기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송하고 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찬송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 어찌 그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 그뿐이라!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복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약한 자를 들어 큰 증거 보이시며 우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 찬송은 사장조(G Major)의 곡이며 흥박자의 쉼표하고 경쾌한 감을 주는 찬송으로 1769년 이태리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가디니(Felice be Giardini)가 작곡하였다.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서울지역 장로들 특별기도

서울시 장로연합회(회장: 김인득)는 지난 1월 10일 오후 4시부터 승동교회당에서 기도회를 개최, 나라와 민족, 교단, 신학교를 위해 특별 기도했다.

98개 교회에서 3백 30명의 장로들이 참가한 동 기도회에서는 장로들이 시무하는 각 교회와 영적 성장과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발견, 교회의 발전을 도모할 것도 기원했다.

박 회천목사는 「직분」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 정직, 바르게 직분을 수행해야 하며 인간의 수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들이 받은 직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땀땀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기도회는 손 봉호박사의 「한국교회에 있어서의 장로의 위치」 이 종윤박사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면」이라는 특별 강연도 있었다.

「교회종」 철거시정을 요구

— 한국 기독교대책협, 환경청에 보낼 질의서 채택 —

한국기독교대책협의회는 그랜드호텔에서 운영위원회 열고 교회종 철거 문제에 대해 환경청에 기독교계의 견해와 질의서를 채택하여 보냈다.

동 회에서 채택한 질의서에는 「기독교 2천년 역사에 있어서 타종이 예배행위에 직접 관련되어 왔으며 일반 대중의 정신을 올바른 진리로 계도하는데 크게 공헌하여 왔다」고 지적하고 「국가 사회를 초월하여 역사적으로 어디에서나 교회는 자유롭게 타종하여 왔다」고 밝혔다.

「또 종교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민주 한국에서 교회의 종을 강제로 철거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 전체 이름으로 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근대화되고 다양화된 이 사회에서 교회의 종소리가 일반에게 소음공해와 같은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여 교회의 자발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교회타종의 근본목적에 부합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바 이는 점차로 시행될 것이 사료된다」고 밝히고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교회종의 강제 철거 사항에 관하여 귀 환경청의 확실한 방침을 알려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성경고사대회 종합우승

동서울 주연(主聯)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주최한 제10회 전국 성경고사대회에서 동서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총점 1천 1백 58점으로 영예의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월 15, 16일 양일간 광주 동명교회당에서 실시된 동 고사대회에는 31개 노회 7백 46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여 제각기 닦은 성경실력을 겨루었다.

입상노회는 다음과 같다.

▲ 종합우승: 동서울주연

▲ 2등: 남서울노회

▲ 3등: 부산노회

경찰 신자화에 총력

—서울시 교회와 경찰협의회 총회—

서울특별시 교회와 경찰협의회 제8차 정기총회 및 신년조찬기도회가 1월 14일 개최되어 새 회장에 이주영목사(평강교회 시무)를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이주영회장은 「경찰신자화도 군목활동 못지않게 중요함을 인식하고 전국교회의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제하고 「경목활동에 대한 인식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경찰, 유치인, 청소년, 윤락여성 등에 이르기까지 복음화에 전력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초교파협회」에 경고키로

—선교비 지원에 현혹되기 바라—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회장 유호준)는 1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통일교가 「초교파 기독교 협회」를 통해 기성교회에 12억원의 자금을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초교파 기독교 협회에 기성교회를 교란하는 일련의 행위를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초교파협회의 유인물에 의하면 「81년에 12억의 예산으로 매월 1억원씩 19개 교단에 무조건 지원하겠다」고 하고 「선교비 지원요청을 교단 차원에서 20일까지 해 주길 바라고, 만약 지원요청이 없으면 각교단 소속교회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내용이 적혀있다.

해외선교사 · 선교지 소식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1. 비자연장 수속 완료

1981년도 체류를 위한 비자연장 수속이 완전히 끝났다. 허락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요망하고 있다.

2. 영주권 신청 수속중

제3세계 선교 및 오지선교의 전진선교 영구화를 위해 선교사 영주권 취득사업을 수속중에 있다.

3. 환영예배

해양대학교 해상 선교회원 60명 전원을 선교관에 초청하여 환영예배 및 만찬회를 베풀었다.

4. 오지 사역 현황

판메안지역(수코요): 장년 3명 결신
골로지역(양민): 유년 1명 결신
틀로고모지역(스와르소): 장년 2명 결신

수코레조지역(양민): 유년 1명 결신
멤쁘르사리지역(빠르미잔): 장년 2명, 유년 2명 결신

무미한지역(엘리오): 3명에게 세례
뿌충지역(요나단): 장년 2명 결신
수디모로지역(수코요): 장년 1명 결신

숨버레조지역(쁘리바디): 장년 1명 결신

세나유지역(까르노): 장년 1명 결신
가리워노지역(까시킨): 장년 1명 유년 5명 결신

위노기리지역(끼시킨): 장년 2명 유년 2명 결신

깜 부지역(존에디): 장년 1명 결신

기도제목

1. 비자연장과 영주권 신청 수속이 잘 해결 되도록

2. 오지 사역자들의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홍콩—홍종만 선교사

1. 홍콩한인교회

① 제4회 바자회를 하여 나온 이익금 홍콩불 53,238을 홍콩구제기관에 기탁하다.

② 인도네시아에 선교비 송금

2. 중공선교

① 중공에 성경 및 각종 신앙서적 보냄.

② 중공의 성도들에게 편지 발송.

③ 중공의 성도들에게 성화카렌다 발송.

④ 마카오 교회는 계속 정상운영 중이며 지난 성탄절에는 100 여명이 참석하여 예배드림

3. 선교사님의 동정

① 홍목사님은 한인교회의 화평과 중공선교의 효과적인 계속 수행을 위해 계속 유임하기로 결정함.

② 목사님의 3년 미라는 본국 대학에 전학하기 위해 귀국중임.

기도제목

1. 홍콩 한인교회의 계속 발전을 위하여

2. 중공선교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4. 중부 이집트의 엘·미니아 지방을 답사 여행하였음.

5. 애굽복음주의 교단을 방문, 지교회 지원금을 전달.

6. 카이로 한국학교 개교(주년 기념식)에 참석 학교의 발전을 위해 축복 기도의 순서를 담당함.

*기도제목

1. 애굽선교의 발전을 위해서

서독—육호기 선교사

1. 쉬바인후르트 교회로미국부터 초청을 받고 본교회 성가대가 찬양과 한국교회 성가에 대해 증거함.

2. 뷔츠부르크교회와 하나우교회는 성례식을 거행.

3. 비스바덴 한인교회는 교회법인 인가를 받았다. 이는 앞으로 교회 건축허가 및 교인들의 종교세를 면제받는 일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본다.

4. 뷔츠부르크교회 성가대는 미국병원을 방문, 찬양과 기도로 환자들을 위로함.

기도제목

1. 한인교회(3군데)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애굽—이준교 선교사

1. 아랍어 언어훈련 중에 있음.

2. 카이로 한인교회, 헬리오폴리스 가정교회 및 동산살람 현장 예배를 인도중.

3. 카이로시 자이툼 복음주의교회(부슈라복사)주일 저녁예배에 초청받아 설교함.

호주—김태현 선교사

1. 선원선교활동

선원선교회 주최로 멜본항에 정박중인 선원들과 함께 야외예배를 드림. 이들에게 전도와 길 안내에 협력

2. 한인회 총회에 참석

3. 교회와 같은 구역에서 일하고



〈마카오 선교 교회에서의 성탄축하예배〉



〈김포공항에서 출국하는 칠레의 유재일 선교사〉

있는 스미스목사의 종별회 참석

4. 여권연장이 허락

5. 한인교회에서 서리집사 5명을 선출

6. 선교사 주소 변동(1월 7일 부터) 8A Joffre St. Burwood Vic 31 25.

기도제목

1. 멜본한인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2. 태평양권의 선교기지가 되도록

아르헨티나—백 성룡 선교사

공한미착

기도제목

1. 교회의 부흥과 목사님을 위하여

파라과이—김 재창 선교사

공한미착

기도제목

1. 계속적인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칠레—유 재일 선교사

유 선교사 가족(모친, 사모님, 아들)은 1월 28일 오후 8시 30분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임지인 칠레로 향하였다. 온 성도의 기도를 요망한다.

인도—엘리아젤간 선교사

1. 선교사님은 거의 매월 1회 이상 선교 여행중이심.

기도제목

1.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일본—유 병세 평신도선교사

1. 1976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만 5년동안 교포의사 권씨, 병원간호원 1명이 출석하며 결신자 중천기사와 구상간호원, 상석보건부 그리고 환자 반목부인과 당원씨 이외에 주일학교 국민학교 학생 수명이 출석하였다.

2. 권여사가 협력하여 문서전도에 힘쓰고 있고 축산대학생 2명이 권여사와 함께 교회 바자회에서 한국 요리를 베풀고 전도를 하였다.

3. 계속 환자전도와 대합실전도, 입원환자 전도중이다.

4. 매주 수요일 부인성경반 인도하며 새벽기도 인도, 매 주일 매 토요일 성경인도함. 그러나 1월부터 3월까지의 눈이 많이 쌓여 당분간 중지하기로 하다.

기도제목

1. 유 선교사님 내외분의 영·육의 강건을 위하여.

서독—박 용삼 평신도선교사

1. 81년도 새해인사 편지 래도
2. 독일정부 장학금 신청중에서 연구보조비로 3,000 마르크 정도를 받아 필요한 책들을 살 수 있어 감사하고 있음
3. 날씨가 고르지 않아 감기가 유행하지만 감기에도 걸리지 않고 연구할 수 있어 감사하고 있음

기도제목

1. 연구논문이 잘 진행되도록
2. 선교사님의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권찰의 임무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교회에는 여러 모임이 있는데 권찰회는 그 어느 모임과 달리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 업무를 돕는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권찰회는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권찰운영 방침도 세워져야 하며 운영되어야 합니다. 흔히 권찰이 집사 후보로 생각되어 지는 이러한 생각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권찰직은 집사직의 후보직이 아니라 엄연히 구분된 존귀한 직책입니다. 참으로 당회장님의 목회를 돕는 업무를 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권찰들은 평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회장 목사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교인을 향한 소원을 교인들이 잘 알도록 전달하며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장로나 권사, 집사직을 가진 직원들보다 더욱 평교인과 많이 접촉하여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특히 교인들의 개인 혹은 가정 형편이나 사정을 목회자에게 알리는데 있어 귀중한 역할을 해야 하는 귀한 직책을 가진 권찰직입니다. 그러므로 권찰은 그 어떤 다른 제직보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더욱 충실한 자라야 하겠습니다.

1. 신앙이 독실해야 합니다.

신앙이 독실하다는 것은 그 행실을 보아 압니다. 그러므로

- ① 주일을 잘 지키며 모이는데 본이 되어야 하며,
- ② 힘써 기도하고 부지런히 전도하는 자라야 하며,
- ③ 헌금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열의가 있어야 하며,
- ④ 교회와 이웃을 위해 출선 희생 봉사하는 자라야 합니다.

2. 하나님 말씀(성경) 지식이 풍부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부한 자가 되려면

- ①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여 부요해져야 하고
- ② 성경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실제로 순종, 실천하여 생활로 인해 체험적으로 풍요해져야 합니다.

3. 교인들의 사정과 생활 형편을 속히 잘 파악하는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 ① 가정을 열심히 찾아가 보는 일을 통해서
- ② 가정을 살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주는 일로
- ③ 가정과 생활하는 것으로 속히 그 가정사정, 형편을 알아야 합니다.

4. 교회 형편과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방향과 목회에 대하여 속히 알고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 당회장 목사님께서 내놓으신 교회 생활 목표가 무엇이나? 한다면 1981년 1월 중현지(P.6)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고 전하는 한 해로」라는 제목 하에 쓰신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평교인들에게 주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현지(P.4)에 살전 1:1-10 성경 말씀을 중시하여 「감사할 만한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 하에 전해 주신 설교의 내용 등을 마음 깊이 새기고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권찰에 대한 말을 맺으면서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의하여 본 심방부에서 전달되는 모든 지식들을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1981년은 모든 권찰님들이 이렇게 힘써 움직여 크게 교회 부흥을 가져와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민족에게 유익주고 자손에게 복을 남겨주며 자신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중 새 교우 명단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1 지구

상계 1구역 김현숙
장신 2구역 윤경아
안암 구역 김형주
광희 1구역 김혜경
상계 1구역 허성국

• 2 지구

전농 구역 김춘수
신당 1구역 이방숙
중화 1구역 유병임
홍인 2구역 김영숙
암사 구역 박귀남
신당 2구역 강병인
쌍림 3구역 박정원
면목 2구역 김현자
장충 1구역 신키훈
안암 구역 송준조

이문 구역 권오근

군자 구역 어영순
전호 1구역 이상복
석관 구역 위경애

• 3 지구

금호 구역 주정수
보광 구역 김은기
보광 구역 김진금
강남 4구역 김희석
성수 1구역 김애영
삼성 구역 김은순
도곡 1구역 김종민
옥수 2구역 김영화
도곡 1구역 김인숙
정담 2구역 신일순
목정 1구역 이윤례

• 4 지구

필동 3구역 임성희
신림 3구역 김영숙
상도 2구역 신귀옥
방배 1구역 김만영
사당 1구역 최철호
반포 2구역 강송옥
인현 2구역 김광수
시흥 구역 이경상
신림 1구역 송현숙
방배 3구역 조영희
신길 구역 주은영
봉천 2구역 김경옥

• 5 지구

역촌 1구역 이영옥
효자 구역 황영실
가회 구역 김희순
효자 구역 이재인
신당 5구역 최장희

* 축하합니다. (12월중 결혼)

• 한광조군(초등부교사) 1일
• 김 경양(이숙영권사 딸) 3일
• 김명환군(정양배집사 아들) 5일
• 김중만군과 고미경양(주진각집사, 이명자권사 딸) 8일
• 이명건군(이임희씨, 백영희권사 아들) 8일
• 오인숙양(송명희집사 딸) 16일
• 강태영군(고등부교사) 16일
• 김옥선양(김원화집사 딸) 17일
• 김성태군(윤지호씨)과 이원희양(부천구역) 22일
• 김용구군(어은애권사 아들)과 서은숙양(전영화권사 딸) 27일
• 김철영군(주교교사) 29일

* 위로드립니다 (12월중 별세)

• 박두성집사(서대문①구역) 9일
• 문인택집사(임현복권사 부군) 19일
• 임소복례씨(한남구역) 21일

매일 성경공부 실시

협동목사가 강사로, 3월 2일부터

교회는 오는 3월 2일부터 저녁 실시하게 된다.

성경공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온 교인들을 성경말씀을 통하여 각 개인을 만들고 세우신 하나님을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일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 성경공부를

이 성경공부는 각요일별로 과목을 달리하여 신·구약 총론 및 성경각론을 강의하게 되는데 강사는 본 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수요일)와 네분의 협동목사가 각 요일별로 강의하게 된다. 참가대상은 본 교회 교인과 타교

인 중에도 등록한 자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회는 또 한 매일 성경공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총현성경연구원을 신설키로 했다.

각 과목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과 목	강 사	모집인원	수업일수	수업시간
	신구약총론	이종윤	작반공동필수	1981. 3. 2(월)개강~3. 12(목) 종강	월·화·목요일(2주간) 오후 7:00~8:40
월요일	시편 I	윤영탁	200명	1981. 3. 16(월)개강~6. 22(월) 종강	매주 월요일(15주간) 오후 7:00~8:40
화요일	소산지서 I	김희보	200명	1981. 3. 17(화)개강~6. 23(화) 종강	매주 화요일(15주간) 오후 7:00~8:40
수요일	마태복음	김창인	작반공동필수	1981. 3. 18(수)개강~6. 24(수) 종강	매주 수요일(15주간) 오후 7:00~8:40
목요일	요한계시록	신성중	200명	1981. 3. 19(목)개강~6. 25(목) 종강	매주 목요일(15주간) 오후 7:00~8:40
토요일	창세기	이종윤	200명	1981. 5. 2(토)개강~6. 27(토) 종강	매주 토요일(9주간) 오후 2:00~3:40

주교각부 계절학교 (겨울) 실시

—지난 1월 19일, 고등부를 선두로—

주일학교 각부는 1981년도 겨울 계절학교를 각각 계획, 이미 고등부를 선두로 3월 4일까지 겨울 계절학교를 실시하게 된다.

1981년도 겨울 계절학교에는 학

생 2,750명, 교사 380명, 보조교사 45명, 강사 25명이 수고하여 치루게 되는데 금년 계절학교의 특색은 외래강사 초빙을 억제하고 교회내에서만 강사를 허락하기로 한 점이

다.

따라서 각 부서는 주로 자체 교역자가 강사를 담당하고 있다.

금년도 각부 주일학교의 계절학교 실시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81년 주교 각부계절학교(겨울) 실시계획 개요

부 구 분	어	새	영	아	유	치	유	년	초	등	중	등	고	등	대	학	청	년	산	교	계
회 수	18	12	12	12	18	18	18	11	11	10	4	4									
주 제	우리에게 믿음을더하 소서	서로서로 사랑하라	믿음과생활	믿음과생활	믿음과생활	내영혼을 소생키소서	은혜와진리 가충만한사 람이되자	복음과함께 고난을받으 라	여호와와의 친밀한관계를 강하게 하고담대하 라.												
주제성구	막9:23	요13:13-14	빌4:13	빌1:27	약2:22	시편23:3	요1:14	딤후1:8	출7:15	수1:9											
주제찬송	253	서로서로 사랑하라	할수있어요	309	464	486	210	468	289	321											
기 간	1. 26~29	3. 3~4	2. 23~25	1. 26~29	1. 26~29	2. 25~28	1. 19~22	2. 17~20	2. 15~20 18일(수)제외	2. 5~7											
장 소	청년부실 새신자부실	유년부실 영아부실	유치부실 유년부실 영아부실 지하실	유년부실 영아부실 유치부실 당회실	본 당 새가정부실 별관4층	본 당 유년부실	본 당 유년부실	별관4층 유치부실	청년부실 유년부실	유년부실											
학 생	100	350	380	400	450	380	300	150	200	46											2756
교 사	30	32	50	70	70	47	40	8	7	24											378
보조교사		13	12	10	5		5														45
외래강사			이귀자																		1
내부강사	김 정 훈 인 정 옥 김 연 이 김 은 숙 이 대 진	정 소 영	정 연 희 박 성 수	안 석 려 김 장 근 안 윤 진 장 병 기 임 준 자	이 양 우 이 상 원 조 준 상 한 영 준	최 봉 호	조 준 상 유 희 섭	허 중 옥 정 주 진	이 승 근	이 승 근											24
계	135	396	445	485	529	428	347	160	208	71											3204

인사이동

1. 예배위원회

가) 성가부

① 퇴 임

제 1 성가대 김미정 엘토

제 1 성가대 김재중 데너

2. 교육위원회

가) 주일학교

① 임 명

유치부 임연희(여) 정교사
유치부 이은경(여) 정교사
유년부 김미정(여) 임시교사
초등부 이성은(여) 정교사
중등부 윤혜옥(여) 임시교사
고등부 정명희(여) 임시교사
고등부 장병기(남) 정교사
고등부 황희만(남) 정교사
대학부 오태용(남) 정교사
대학부 윤완철(남) 정교사
장새부 전명옥(여) 임시교사

장년부 김여순(남) 임시교사
장년부 한경석(여) 임시교사
장년부 김정례(여) 임시교사
장년부 김은숙(여) 정교사
노년부 원옥순(여) 정교사
산교부 유순화(여) 정교사
산교부 김정복(남) 임시교사
새가정 김영철(남) 정교사

② 전 임

최경애(여) 장새부에서 노년부로
한종규(남) 산교부에서 초등부로

③ 퇴 입

고등부 조인재(남) 정교사
 선교부 조관식(남) 정교사
 선교부 최명옥(여) 정교사
 중등부 한정배(남) 정교사
 중등부 김광영(남) 정교사
 새가정 박성수(남) 부 장

정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제작, 보급하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는 매주일 대예배 및 저녁, 수요일예배의 설교와 성가대의 찬송가 선집 (1) (2), 영아부와 유치부, 초등부의 찬송들이 있다.

의 방안을 찾고자 모인 이 수련회는 매년 연초에 실시해 왔다. 이 수련회의 강사는 영아부 지도 정소영 전도사가 담당하여 수고하였다.

성가대 연합

음악예배드려

교회는 지난 2월 8일 저녁예배를 성가대 연합음악예배로 드렸다. 이날 음악에서는 각 성가대에서 한 순서씩을 맡아 발표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합창은 제 2 성가대, 중창은 여성성가대, 독창은 제 1·3 성가대가 각각 맡아서 했다.

성가부는 앞으로 매월 연합음악예배를 계획하고 이를 통해 성가대의 발전과 또한 저녁 찬양예배의 의미를 더욱 살리고자 한다.

카세트 테이프

보급창구 일원화키로

당회는 그동안 각 지회에서 임의로 카세트 테이프를 제작, 보급하고 있던 종전의 방식을 변경, 이에 따른 불편과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카세트 테이프의 제작 및 보급창구를 일원화, 출판관에서 담당키로 결

시내 영아부교사 수련회

주일학교 영아부는 지난 2월 12·13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내의 영아부의 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영아부교사 수련회를 가졌다.

아직도 영아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회가 많아 이를 계몽하며 운영방안등을 알리고 피차간에 유대를 통해 보다 나은 영아부 교육

각 종 통 계

1981. 1. 4. (매월 첫 주 기준)

총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 버스편

- 매 주일 저녁예배후
- 매주 수요일예배후 9시에 교회앞에서 출발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천·여주방면 완행버스를 (20분 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서 하차)하여 광주행 31번 버스를 타고(광주에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 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대방))에서 하차

(주소) 130-02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화 101번을 거서서

「경기도 광주 초월14번」을 신청

구 분		남	여	계						
예	주일날	I 부	125	230	335	총세대수	3,729			
		II 부	383	915	1,298					
		III 부	411	858	1,269					
		IV 부	253	725	978					
		계	1,172	2,728	3,900					
배	수 일 저 녀	211	376	587	신	교안	남	3,565		
	삼 일 저 녀	205	327	532			여	5,144		
주 일	학	어린이새신자부	20	8	28	급	발	세례	남	1,962
		영 아 부	159	203	362				여	3,393
		유 치 부	135	203	338			입교	남	499
		유 년 부	204	192	396				여	415
		초 등 부	206	201	407			유아	남	295
		중 등 부	170	155	325				여	391
		고 등 부	141	136	277			세례	남	809
		대 학 부	81	70	151				여	943
		청 년 부	91	104	195			인	남	809
		장년새신자부	47	139	186				여	943
교	교	장 년 부	25	274	299	현	황	교인	남	809
		노 년 부	35	117	152				여	943
		산 업 교 육 부	10	88	98				계	1,752
		선 교 부	20	62	82					
		새 가 정 부	27	25	52					
합 계		2,959	5,322	8,281						

2월의 행사

- 4 일 제직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재정위원회
- 5-7 일 유년부 겨울제철학교
- 9 일 전채철야기도회
- 11일 남전도회, 권사회월례회
- 12일 특별권찰회
- 15-20일 청년부 겨울제철학교
- 17-20일 대학부 겨울제철학교
- 18일 여전도회월례회, 재정위원회
- 해외복음산교회실행위원회, 출판국월례회
- 23-25일 유치부 겨울제철학교
- 25일 권찰회, 전도위원회월례회
- 25-28일 중동부 겨울제철학교
- 27일 정기당회

편집하고 나서

*...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중에 하나인 예배에 대한 인식이 점차 식어지고 관습적이 되지 않나 싶어 이달엔 「예배」특집을 마련하여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세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매사가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 내용을 잃기 쉬운 것이 간사하고 번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이다.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며 말씀 가운데 서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월간충현에서는 우리 생활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 새로운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글이 이달부터 연재된다. 필자 문창수목사님은 미국에

가서서 4년동안 기독교교육을 전공하신 분으로 현재 각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던 기독교교육과 많은 차이가 있고 또한 매우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것으로 지도자나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글이 되리라고 믿는다.

*... 또한 이달과 다음달에 이종윤목사님의 중공선교여행 보고서가 나간다. 2차에 걸친 중공선교여행의 모든면들 상세하게 감동적으로 적어 주셨다. 여러곳에서 부탁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충현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월간충현의 게재를 허락해 주셨다. 중공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기회가 되어 지기를 바란다.

*... 계속 원고가 밀려 다음 달로 넘어 가게 되어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좀 더 페이지를 늘리고 싶지만 재정 형편상 어려운 일이니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란다.

* 월간충현 조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조현명

편집위원/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종주

이형수 김정태

월 간 충 현

월호

제9권제2호

통권 제85호

발행인/김창인

편집인/조현명

주 간/윤형철

편집부장/이형수

대한예수교총현교회

장로회

1972년 4월30일 창간

1981년 2월15일 발행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0-3407·3408

1981년도

총현교회 교역자

위임목사

부목사



김 장 인
(당 회 장)



김 원 남
(실방위원회위원장)



한 영 절
(기도원지도)



김 하 진
(설가부지도 · 6 지구)



이 승 근
(청년부지도 · 1 지구)



윤 형 절
(교육위원장 · 당회상설장)



김 장 근
(장새부 세례반지도 · 4 지구)



장 정 일
(노년부지도 · 5 지구)



김 석 원
(장새부학습반지도 · 7 지구)



남 성 호
(2 지구)

협동목사



김 희 보
(장년부지도)



윤 영 탁
(새가정부지도)



신 성 종



이 중 운

강도사



김 영 휘
(선교부지도)



조 준 상
(고등부지도)



최 봉 호
(중등부지도)



박 동 실
(산립지도교육부지도)



허 중 옥
(대학부지도)

여전도사



이 두 란



최 순 복
(7 지구)



구 명 신
(2 지구)



김 경 성
(성경학원부지도)



김용선
(4지구)



정연희
(유치부지도)



정소영
(형아부지도)



김순애
(5지구)



김순옥
(3지구)



김은숙
(1지구)



김연이
(6지구)

공로전도사



김연순



이명달

교육전도사



김경신
(장년부부지도)



김양래
(중등부부지도)



김장근
(초등부부지도)



김정훈
(어린이새신자부지도)



성주진
(대학부부지도)



안석열
(유년부지도)



유국남
(선교부 부지도)



이상원
(초등부 부지도)



이손
(당회장실 총무)



이양우
(초등부 지도)



정은표
(새가정부 부지도)



황명길
(청년부 부지도)



원동석
(고등부 부지도)



김정자
(유치부 부지도)



유희섭
(고등부 부지도)



인정옥
(어린이새신자부 부지도)



장영자
(장년부 세례반 부지도)



정금숙
(장새부 학습반 부지도)



현정남
(산업전도교육부 부지도)